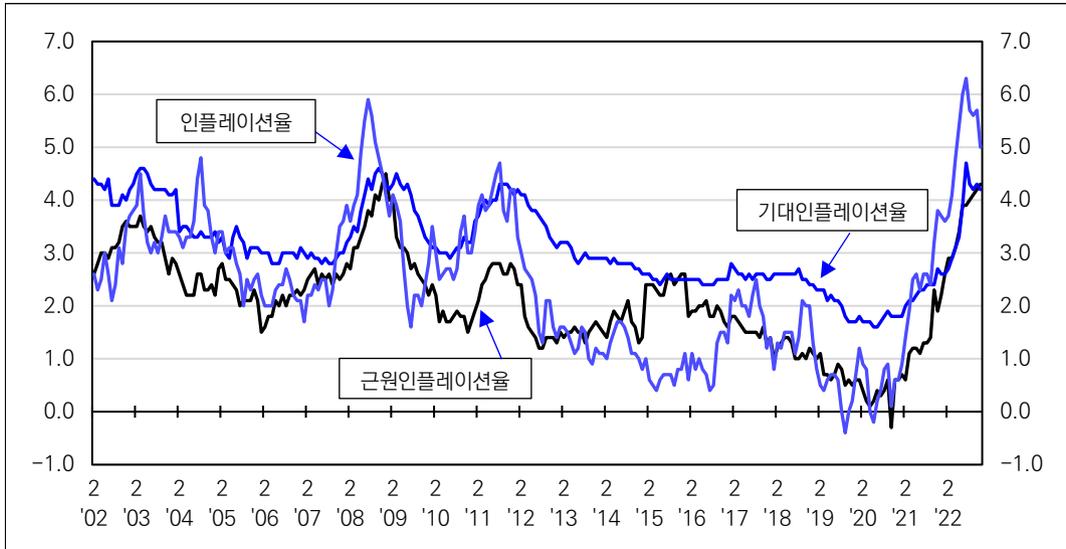


# 기대인플레이션 추이와 특징

- 소비자물가는 2021년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.
  -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4분기까지 0%대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1분기 중 1%대로 높아졌고, 이후 2~3분기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%를 웃돌다가 4분기 중 3%대로 높아졌음. 2022년 들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높아져 최근까지 5~6%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음.
  - 근원물가(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) 상승률도 2022년 2분기 중 3%대로 상승한 이후 8월부터 4%대 상승률을 이어감.

[그림 1] 기대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추이

(단위 : 전년동월대비, %)



주 : 인플레이션율은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대비),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,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(향후 1년 기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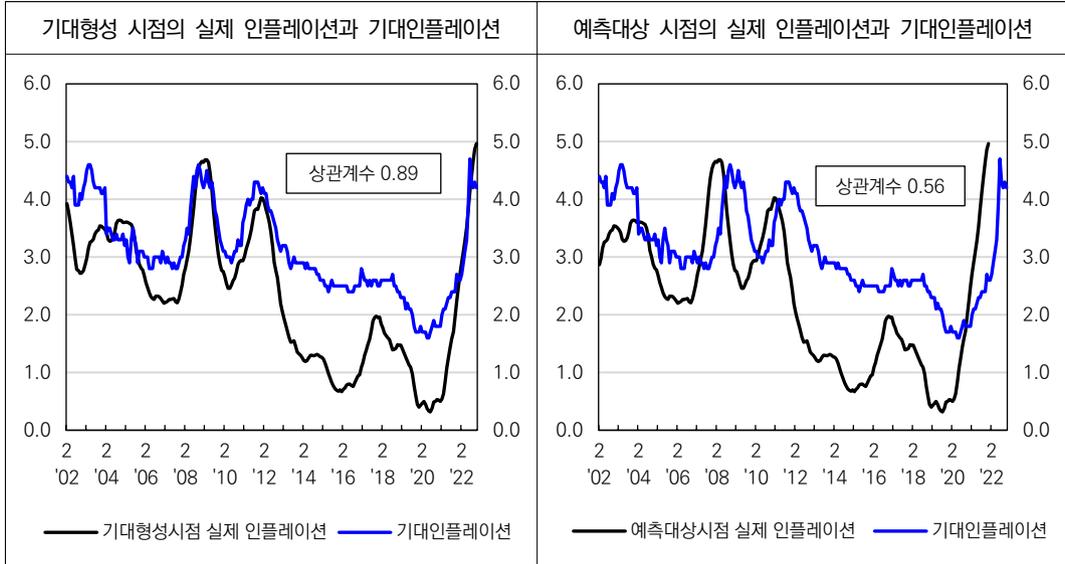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소비자물가조사」; 한국은행, 「소비자동향조사」, 각 연도.

- 소비자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  -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임.
  - 경제주체는 기대인플레이션 예측에 따라 소비, 저축 등 경제활동을 결정하고, 가격과 임금을 설정하게 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님.
  - 기대인플레이션은 직접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되고 있음. 향후 1년간(단기) 예상되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로 한국은행 「소비자동향조사」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널리 이용됨.
  - 한국은행이 2002년 2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전망하는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로, 일정구간별(1.0% 간격)로 설문조사하여 중앙값으로 산출됨.<sup>1)</sup>
  - 소비자물가의 상승폭 확대와 함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면서, 2020년 중 1% 후반대이던 기대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2%대로 상승하였고, 2022년 2분기 중 3%대로 높아졌으며 이후로 4%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(그림 1 참조).
- 향후 1년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보면,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대형성 시점의 실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높음 .
  - 기대형성 시점의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형성 시점(「소비자동향조사」 조사 시점) 이전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, 예측대상 시점의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형성 시점 이후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함.
  - [그림 2]에서 보듯이,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측대상 시점인 1년 후의 실제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는 0.56, 기대형성 시점의 실제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는 0.89로 예측대상 시점보다 기대형성 시점의 인플레이션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.
  - 참고로,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기대형성 시점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비교해도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.75로 기대형성 시점의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높음.

1)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음. “앞으로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얼마나 상승/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”(2021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표 16번 문항 기준).

[그림 2]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

(단위 : 전년동월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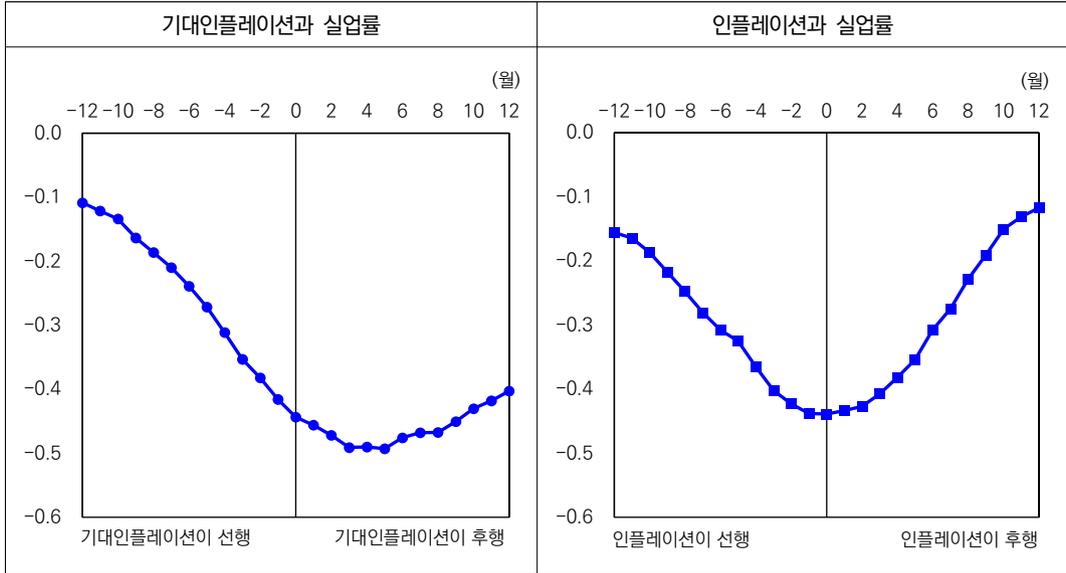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기대인플레이션이 향후 1년간의 평균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도 기대형성 시점 전후 12개월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.  
 2) 기대인플레이션은 일반인 기준.

자료 : 통계청, 「소비자물가조사」; 한국은행, 「소비자동향조사」, 각 연도.

-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3~5개월 이전 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일반적으로 실업률 등 고용지표나 GDP갭(실질GDP-잠재GDP) 등은 실물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, 실업률이 하락(상승)하거나 플러스(마이너스) GDP갭이 확대되는 경기상승(하강)기에는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 - [그림 3]의 왼쪽은  $t$ 기의 실업률과  $t \pm i$ 기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간 시차상관계수를 나타냄.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업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, 3~5개월 이전 실업률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(-0.49)를 보이며 실업률에 후행하는 경향이 강함.
  - 한편, 인플레이션도 실업률에 동행 또는 1~2개월 후행하면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임.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 상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.
  
-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(향후 1년 기준)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.
  - 200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,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대형성 시점의 실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높았음.
  -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업률에 3~5개월 후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. **KLI**

[그림 3]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 시차구조(분석기간 2002년 2월 ~ 2022년 11월)



주: 1) 그림은 각각  $t$ 기의 실업률과  $t \pm i$ 기의 기대인플레이션,  $t$ 기의 실업률과  $t \pm i$ 기의 인플레이션 간의 시차상관계수를 의미함.  
 2) 실업률은 계절조정자료, 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.  
 자료: 통계청, 「소비자물가조사」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한국은행, 「소비자동향조사」, 각 연도.

[참고문헌]

한국은행 통계조사팀(2021), 「2021년 소비자동향조사표」, 한국은행.  
 이정익(2012), 「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」, BOK 경제리뷰, No. 2012-1.

(이기범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